

3》 평의원회 정원 분석

서울권	경희대	8	5	4	4	21명
주요 사립대학	고려대	5	2	2	2	11명
평의원회 구성비	서강대	5	2	2	2	11명
	성균관대	5	2	2	2	11명
	연세대	6	3	3	3	16명

4》 서울시장 후보자 인터뷰



학사다이어리 – 2014학년도 1학기 정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강의평가 일정 : 2014. 6. 2(월)~6. 26(목)

실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담→수업→강의평가

※ 강의평가를 종료한 학생은 2014. 6. 16(월)부터 입력된 성적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강의평가를 미실시한 학생은 2014. 7. 1(화)부터 성적조회가 가능함

아르바이트생 66.9%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캠퍼스 주변 노동실태 심각

권오은 기자 typhoon11@knu.ac.kr

#1. A양은 회기동의 한 편의점에서 1년 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시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고, 주당 40시간씩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서 그가 받는 한 달 월급은 95만 원 가량이다. 단순히 시급대로만 계산해보면 한 달 치 급여는 약 93만 원 내외다. 때문에 A양은 주인아저씨가 ‘작해서’ 5만원 단위로 월급을 맞춰주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실 A양은 본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A양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합산해 계산할 경우, A양이 받아야 할 한 달 급여는 110만 원 내외가 된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단지 등료를 드는 의미 정도로 여기고 ‘정(情)’으로 했던 ‘관행’들, 이를테면 앞타임 아르바이트생의 재고정리 시간에 조금 일찍 출근해 카운터 근무를 서는 경우라든지,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사정으로 ‘근무땜빵’을 해주는 경우 등도 법적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추가금을 받아야 한다.

A양은 앞으로 3개월 가량 후에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했다. 이 경우 A양은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체불됐던 주휴수당 역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권리 앞에서도, A양은 그저 낯설기 만한 용어들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눈치였다.

#2. B군은 하루에 12시간씩 일

한다.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전 7시에 퇴근한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조차 사라져간다. 12시간 근무이지만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다. 틈틈이 손님이 없을 때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 때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B군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주휴 수당’ 그게 뭔가요?”

앞의 두 사례는 알바노조 경희대분회와 함께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회기·이문동 지역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만난 실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다. 이야기를 나눴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작성했더라도 교부 받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문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양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급여 기준에 대해 들은 후, “(이런 기준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그럼 원래 이만큼 받아야 하는 거예요?”라고 몇 차례 되묻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우리신문이 우리학교 양 캠퍼스 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5면으로 이어짐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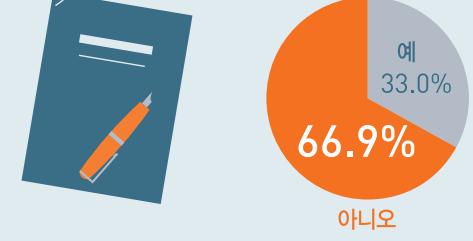
〈설문개요〉
설문대상 : 양 캠퍼스 재학생 333명
조사기간 : 5월 14일~16일

아르바이트 계약

아르바이트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일하면서

주휴수당



휴게시간



아르바이트,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시급 이야기 꺼냈다가 두 달 만에 잘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되도록 조용히 지내요.”
-회기동 음식점 A 알바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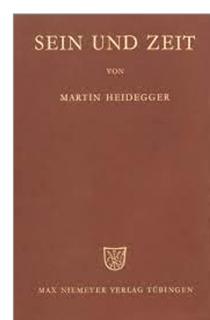
서양 존재론의 해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⑬

서동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어느 날 부시맨들이 사는 마을에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난생 처음 콜라병을 본 부시맨들은 콜라병을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 밀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두들기거나 고정시키는 망치의 용도로 쓰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콜라병을 찾는 수요가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고, 서로 먼저 사용하려

는 부족 구성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마침내 족장은 회의를 소집해서 다툼을 야기시킨 콜라병을 버리기로 결정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도구 연관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도구 연관의 세계란 주변의 사물들을 자신의 삶과 연관해 파악하는 세계를 뜻한다. 이 점에서 보면 로크의 주장처럼 인간

이 이야기는 영화 <부시맨(God Must Be Crazy)>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 영화에는 콜라병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시맨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부시맨들이 보여주는 콜라병의 용도성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도구 연관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도구 연관의 세계란 주변의 사물들을 자신의 삶과 연관해 파악하는 세계를 뜻한다. 이 점에서 보면 로크의 주장처럼 인간

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차츰 경험을 쌓아가는 존재자가 아니라,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주변의 것들을 자신의 관심에 입각해 ‘어떤 것으로서’ 이해하여 살아가는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자이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이리저리 궁리하며 새로운 용도를 발견해 내듯이 우리는 매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자신만의 삶의 용도성에 맞게 적용하며 살아간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는 온라인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이제 모바일 페이지로 따로 접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하는 단말기 사이즈에 맞춘 화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 ‘digest’로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 소셜 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 대학주보는 학내 사안, 대학가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주보 이메일(khunews@knu.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선

사설

연구윤리의식 시스템 아닌 사람에서 시작된다

정보의 유통과 검색, 복제가 용이해진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전 대비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표절’이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도용해서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가져다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표절은 파렴치한 모럴해저드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 중 특히 대학가에서 문제가 되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표절’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저작물을 인용, 재인용,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이 학문적 영역에서의 표절은 ‘여섯 단어 이상의 표현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 이터가 동일(혹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상당부분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기표

절’도 엄중한 도덕적·윤리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 적어도 우리 대학사회에는 여전히 표절이 만연해있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이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을 표절하고 있다는 것은 리포트나 소논문 등의 과제물을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이미 방증하고 있는 바다.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문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많은 대학원생들은 그 ‘입장권’에 해당하는 석사논문에서부터 수많은 표절과 복제를 시도하고 있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지도·편달해야 할 일부 교수들마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채 도덕적 해이 속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보다 더 큰 문제를 짐작하면, 표절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학사회 구성원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일 것이다.

대학사회의 표절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해외의 많은 대학사회 역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오랜 고민을 거쳐 왔다. 그 고민의 결

과로 탄생한 것 중의 하나가 소위 ‘표절에 대한 시스템적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주로 영미권에서 시도돼온 이 방안은 약 20년 전부터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 표절검색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학교가 도입한 Turn it in(턴잇인)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94년 미국 UC버클리 학생들이 처음 만든 아래로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사회에도 적극 소개되어, 지난 2007년 6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가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 31개의 국내 기관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표절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적 방안의 모색’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식범죄의 색출’이라기보다는 ‘연구윤리의 향상’에 가닿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사전·사후예방시스템이 갖춰진다 한들 표절문제가 해결되거나 연구윤리가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문장의 유사도나 중복도를 검색해 표절 여부를 판별하는 턴잇인 프로그램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다

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상 문장 표현만 달리 쓰면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때문에 턴잇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스템적 방안’들은, 해당학과의 전문가들이나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표절 검증 시스템의 보조를 필수적으로 요한다.

결국, 표절문제를 대학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처음 만든 아래로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사회에도 적극 소개되어, 지난 2007년 6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가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 31개의 국내 기관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하다. 절저한 표절방지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표절 근절 의지를 갖춰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 들후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과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인간이 피해가는 방법이란 언제든 존재하기 마련인 탓이다.

선거와 무관심, 그리고 ‘중립’이라는 허상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6.4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필자로서는 지난 대선 이후로 두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투표다. 지난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돼 곳곳에 벽보가 붙고 있고, 역 앞에서는 선거 운동원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는 늘 귀에 뭇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공익광고에나 나올 법한 식상한 이 문구는 바꿔 말하면, 항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정치적 힘도, 능력도 없는 민초들이 유일하게 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투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고, 그 사람이 당선돼서 내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주는 것. 아주 교과서적인 모델이다.

어릴 때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교육받아서인지 선거날에 투표는 안 하고 놀라가는 사람, 난 정치에 관심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선 비판이 가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그냥 내던지는 것은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일하게 정치에 미약하게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필자는 이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흔히들 ‘정치적 무관심’이라고들 말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투표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이것이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광역자치단체 후보의 이름은 그 지역 주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고, 그들의 공약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실 자기 일상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미디어에서도 크게 조명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한 표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우리 동네는 여전하다. 요즘 흔하디흔한 은행 펀드도 주기적으로가입자에게 수익을 보고하고, 원한다면 은행원과 상담도 가능하다. 그런데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는 선거철만 끝나고 나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끊어버린다. 애초에 이 후보가 누구고, 여태 무엇을 했고 그 결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며, 당선됐다 한들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헌신짝처럼 내던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기대를 품겠는가?

정치적 무관심을 탓하고, 투표를 안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정치 행태를 뒤돌아볼 때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나니,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특이한 사람으로쳐다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렇다 보니 ‘중립’, ‘중도’에 대한 담론이 고개를 치켜든다. 누군가 세월호 사태나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면 으레 날아드는 말은 ‘선동’을 한다느니, ‘편향된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느니 하는 핀잔이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중립’이라는 선택지는 없다. 중립도 또 하나의 편향이고,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또 다른 선동이다.

이렇게 중립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이 늘어났다는 점은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에 관여하느니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을 탓하고, 투표를 안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 전에 사회전반의 정치 행태를 뒤돌아볼 때다.

만평 유학생인 게 죄?

'출입국관리법' 악용하는 고용주들



조별과제, ‘묻어가기’는 안 된다

와글와글 경희

이민교
(기자)

좋겠다’고 했다. 또한 ‘그냥 훈자 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댓글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조별과제는 협동심을 키우고, 다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타인의 데려 보려는 몇몇 이기적인 학생들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동체 사회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번 학기만 어떻게든 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쌓이면 그것이 대학 생활의 일부가 된다. 결국 스스로에게도 득 될 것이 없는 조별과제에서의 불성실함, 언제까지 ‘묻어가기’ 식으로 본인의 앙심을 묻어둘 셈인가.

3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아르바이트 풍경

취재수첩

권오은
(매거진팀장)

은행원 출신 어머니를 둔 덕분인지, 어려서부터 ‘돈’에 관해 눈이 밝았다. 이런 밝은 눈은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자주 ‘돈’ 관련 기사를 쓰게 했다. 우리학교의 재정문제도 주요 관심사고, 교육비 환율이나 계열별 등록금 등의 표도 자주 들여다본다. 이런 통계를 나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아무리 정교한 통계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사람’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대문구는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 평균임금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첫날부터 실제를 목도하는 순간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12시간 동안 밤을 새워 일하는 어느 남학생은 약간 수당도 받지 못했고, 그 긴 시간동안 별도의 휴게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잊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그 고민의 시작점에서 지금도 부당한 노동으로 얼룩진 20대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건네본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외국인유학생들이었다. 암묵적으로 그들의 시급은 4,000원 선이었다. 그들도 최저시급이 ‘5,21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상 아르바이트 노동 시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고용주는 이런 점을 악용해 시급을 깎았고, 어느 순간부터 유학생은 시급 4,000원이 당연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황이 3년 전, 기자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기획기사를 취재 할 당시의 실태와 다를 것이다. 당시 일반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불법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 기획기사의 시작점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변한 것이 없다. “잊지 않겠다”고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참이다. 우선 국제교류처를 찾아갈 계획이다.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아르바이트 노동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그 대리인의 자격에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도 속한다. 종학생회도 찾아가, 캠퍼스 주변 노동여건에 대한 계획을 의논해보겠다. 당장 생각난 방법은 이것뿐이다. 다만 앞으로 잊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그 고민의 시작점에서 지금도 근로기준에 어긋난 부당한 노동으로 얼룩진 20대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건네본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보도

박, “적정등록금 시립대 수준으로” 정, “등록금 인하보다 장학금 확충”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서울권대학연합회 공동 인터뷰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일 서울권대학연합회(서언회) 소속 학보사 기자단은 숙명여대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간 관계상 일부 문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같은 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복지, 주거,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차를 다뤄봤다.



“

기술사 건축제한 완화할 것

“

대학생 임대주택·공공기숙사 확대예정

”

놓았다.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 평균 기숙사 확보율이 14%라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것을 알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30% 수준의 가격으로 다세대 주택, 원룸을 공급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이나 공공기숙사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박 후보는 “이를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2016년까지 원룸을 늘리고 관리인을 두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요소들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학별 기숙사 건립에 초점을 맞춰 “대학이 기숙사를 확장하고 싶어도 부지가 개발제한 구역에 둑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완화해 기숙사 수용률을 20%대까지 올리겠다”며 “또한 10만 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중 2만 호 정도는 원룸형으로 공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임기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는데 교육의 질은 기준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며 “등록금이 높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가가 등록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의 대학 중에도 세계 100위권 대학이 많다. 우리나라 대학의 적정 등록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 정도까지는 내려갔으면 하고, 당선이 된다면 임기 중에 교육부와 협의해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 박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방안을 내

계·홍릉 지역을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로 구축하려 한다”며 “청년밀집지역 6개소에 ‘무중력지대’를 설립, 청년 부채와 주거·복지·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내세운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도 이에 대한 관점을 밝혔다. 정 후보는 “세월호 사태 이전에도 우리나라 규제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전례’에 집착했다”며 “물론 규제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에 대해 박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현재 청소년까지도 제한된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할 것이고, 소요 예산 710억 원 가량도 마련했다”며 “학생과 직장인의 등교·통근 시간이 겹치는 아침 시간에는 이미 도로가 과포화 상태라 도로 환경을 훼손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두 후보의 인터뷰 전문은 서언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eoeonho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30·31일
서울, 회기동주민센터
국제, 서농초등학교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오는 6월 4일, 제6차 지방선거부터 기존의 부재자투표제가 폐지되고,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사전투표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거주지역이 신고지역과 다른 ‘관외선거인’도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거주지역 주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전의 부재투표제보다 절차는 간단해졌다.

우리학교의 경우 관외선거인에 해

당하는 재학생비율이 40% 내외인 만큼 사전투표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사전투표제로 절차가 간단해져 대소 적은 투표의지를 가진 투표자까지도 참여를 기대할 수 있어 전반적인 투표율 증가가 예상된다”며 “다만 20대의 투표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투표절차의 복잡성 탓은 아니었기 때문에, 20대의 투표율이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사전투표소까지 발걸음 하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투표율에 추가 주목된다.

〈캠퍼스 주변 사전투표소 알아보기〉



▶ 회기동 주민센터 : 정문방향 도보로 10분

▶ 이문1동 주민센터 : ① 정문방향 273번 승차 이문동주민센터에서 하차 이십오분 소요

② 후문방향 2번 마을버스 승차 외대앞역에서 하차후 도보이동 이십분 소요



▶ 서농초등학교 : ① 제2기숙사 기준 도보로 7분

② 휠체어 영일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마일버스 55번 서농초등학교에서 하차 15분 소요

▶ 영통2동 주민센터 : 정문 앞 버스정류장 310, 7, 7-2, 11-1, 5번 버스 승차 후 영통회차장에서 하차. 주민센터까지 도보로 5분 이십분 소요



서울캠퍼스 201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강좌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장소	비고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장소	비고
이과 대학	MATH1101-S49	MATH1101-S49	미적분학및연습1	박정훈	13:00~17:50	30	이서505		중학교과	GEC102-S49	GEC102-S49	인간의기지개발색	유광주	09:00~11:45	45	청302	4학년 출입대상자 전용강좌
	PHYS1101-S49	PHYS1101-S49	물리학및실험1(실습)	김승훈	08:00~09:50	15	문301	팀티칭		GEC102-S50	GEC102-S50	인간의기지개발색	이정순	13:00~16:45	45	청302	4학년 출입대상자 전용강좌
	PHYS1101-S50	PHYS1101-S50	물리학및실험1(이론)	여승준	10:00~12:45		문403	팀티칭		GEB1101-S49	GEB1101-S49	글쓰기1	권오희	13:00~16:45	25	청303	
	BIOL1101-S49	BIOL1101-S49	생물학및실험1(이론)	안정선	13:00~15:45	15	문403	팀티칭부분영어		GEB1101-S51	GEB1101-S51	글쓰기1	김진수	09:00~11:45	25	청303	
	GEOG3209-S49	GEOG3209-S49	물리학및실험1(실습)	강유리	16:00~17:50		문301	팀티칭		GEB1101-S52	GEB1101-S52	글쓰기1(외국인용)	박정운	09:00~11:45	25	청203	유학생 전용강좌
	MGM1201-S49	MGM1201-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최은주	08:00~10:45	25	이동403	팀티칭		GEB1101-S53	GEB1101-S53	글쓰기1(외국인용)	호정은	13:00~16:45	25	청203	유학생 전용강좌
	ACCT1002-S49	ACCT1002-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박해정	11:00~12:50		이동403	팀티칭		GEB1102-S49	GEB1102-S49	글쓰기2	이민우	13:00~16:45	25	청304	
	MGM1200-S49	MGM1200-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김경숙	13:00~15:45	30	이동801			GEB1102-S51	GEB1102-S51	글쓰기2	방인석	13:00~16:45	25	청402	
	MGM1202-S49	MGM1202-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이용연	09:00~11:45	25	이동403	팀티칭		GEB1202-S49	GEB1202-S49	글쓰기2	이효선	09:00~11:45	25	청402	
	ACCT1002-S49	ACCT1002-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손은근	13:00~15:45	60	2210			GEB1202-S51	GEB1202-S51	글쓰기2	영미	13:00~16:45	36	청403	basic
경영 대학	MGM1200-S49	MGM1200-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김경숙	09:00~11:45	60	2211		기초교과	GEB1201-S49	GEB1201-S49	글쓰기2	Gregory Napp	13:00~16:45	36	청403	basic
	MGM1202-S49	MGM1202-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이용연	13:00~15:45	60	2210			GEB1201-S50	GEB1201-S50	글쓰기2	Jordan Davidson	09:00~11:45	36	청403	basic
	MGM1205-S49	MGM1205-S49	조직행동론	손은근	13:00~15:45	60	2210			GEB1202-S51	GEB1202-S51	글쓰기2	Bryan Cheron	13:00~16:45	32	청503	intermediate
	ACCT1002-S49	ACCT1002-S49	관리회계	안선희	09:00~11:45	60	2209			GEB1203-S49	GEB1203-S49	글쓰기2	오현수	13:00~16:45	37	청504	2014학년 수강불가
	MGM1003-S49	MGM1003-S49	책임경영	안치웅	09:00~11:45	60	2212			GEB1203-S50	GEB1203-S50	글쓰기2	우대식	13:00~16:45	37	청504	2014학년 수강불가
	MGM1001-S49	MGM1001-S49	경영통계학	차제빈	13:00~15:45	60	2212			GEB1204-S49	GEB1204-S49	글쓰기2	이현숙	13:00~16:45	30	청505	
	ACCT1001-S49	ACCT1001-S49	회계회계	나현중	13:00~15:45	60	2209			GEB1205-S49	GEB1205-S49	글쓰기2	정명숙	13:00~15:45	60	청301	
	PHL2006-S49	PHL2006-S49	한국철학사	이현선	09:00~11:45	20	문304			GEB1206-S49	GEB1206-S49	글쓰기2	김정현	09:00~11:45	100	온라인강의	
	PHL2007-S49	PHL2007-S49	희법철학	박종화	13:00~15:45	20	문304			GEB1207-S49	GEB1207-S49	글쓰기2	Joseph Faraci	09:00~11:45	32	청502	basic
	ENG1001-S49	ENG1001-S49	영문학입문	오봉희	09:00~11:45	20	문303			GEB1208-S49	GEB1208-S49	글쓰기2	Neal Williams	13:00~15:45	32	청502	basic
문화 대학	ACCT1002-S49	ACCT1002-S49	조직행동론	차제빈</													

▶ 1면에서 이어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268명 중 180명(66.9%)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없었다고 답했다.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227명(84.3%)이 '받았다'고 답했지만, 주휴수당은 176명(65.4%)이 받지 못했고 절반에 가까운 129명(47.9%)은 별도의 휴게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속 갑과 을,
현실에서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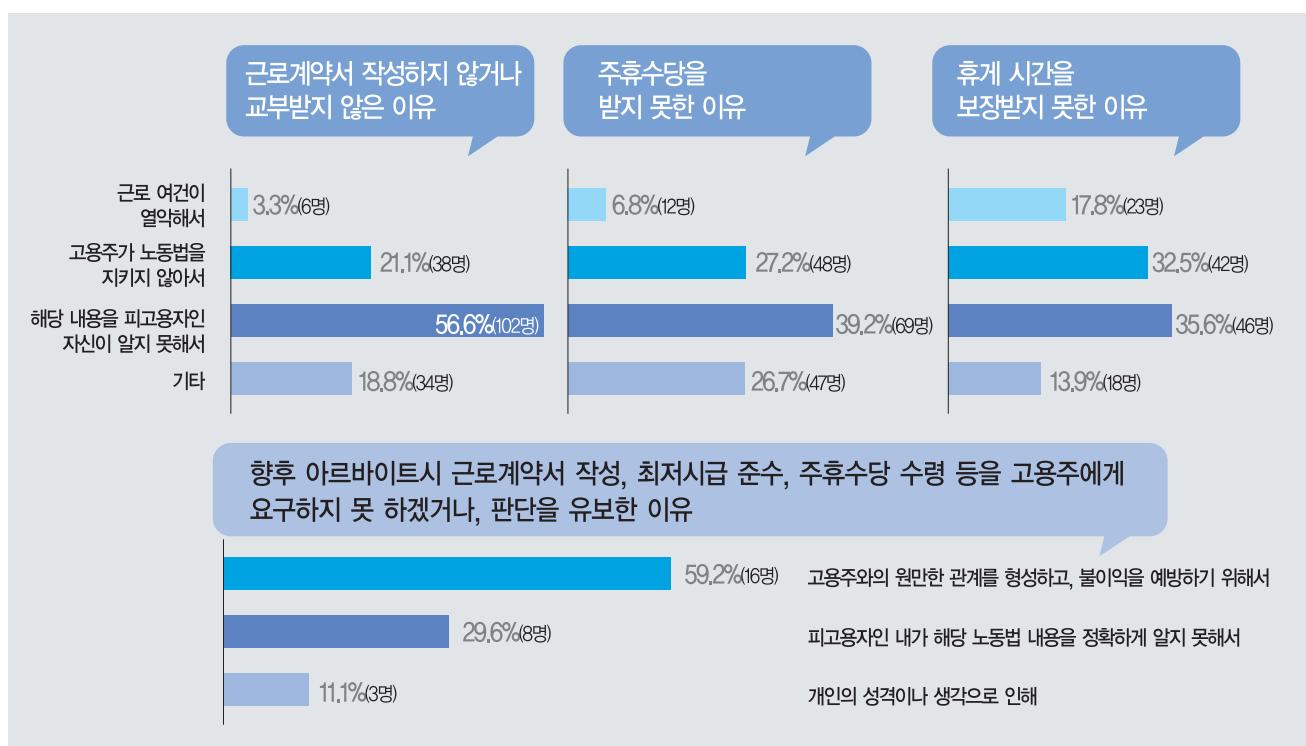
위법사례도 문제였지만,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더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격적 위치'였다. 회기동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D군은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실 시간이다"라며 연신 문밖을 보면서 불안해했다. 심지어 회기역 주변 한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매니저'가 설문조사에 대신 응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으로 내몰기도 했다.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대표적인 근무여건 관련 침해 사례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고용주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하는 경우보다는 '해당 내용을 피고용자인 자신이 알지 못해서'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용자의 법행위를 고용인인 자신의 무지 탓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들조차,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요구하겠다'는 비율보다 '요구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52.8%로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59.2%의 응답자가 '고용주와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이 때문에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학생들은 말하기조차 버거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김재섭(정치외교학 2010) 분회장은 "당장 받을 수 있는 임금조차 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의 이유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모이다보면, 결국 다른 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중에 임금체불이나 근무여건 침해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면,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4,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임금조차 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의 이유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모이다보면, 결국 다른 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중에 임금체불이나 근무여건 침해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면,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4,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임금조차 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의 이유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모이다보면, 결국 다른 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중에 임금체불이나 근무여건 침해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면,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을 받고 있었다. 5,210원인 현행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 것이다. 심각한 경우 3,5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캡스(국제캡) 주변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캡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E군은 "제 친구들도 4,000원 내외의 시급을 받는다"고 하며 "저희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어쩔 수 없죠"라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유학생 평균시급 4,000원,
"한국말 서툰 제가 참아야죠"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배경은 출입국관리법의 까다로운 조건 탓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이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이나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등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 주당 20시간 내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다. 이조차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노동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유학생들은 미신고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신고상태로 근로를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2호 등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주는 이점을 악용해 최저시급이하로 시급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F양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밟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집에 계속 부담을 줄 수도 없으니까 (억울해도) 그냥 일해야죠"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본 우리학교 주변의 노동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집중단속'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지방노동청 구역 넓고 사람 적어
1년에 한 두 차례 정기 점검이 전부

집중단속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관리범위'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주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의 담당구역이다. 문제는 근로개선지도2과는 종로구와 동대문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근무자수가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제캡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범위가 용인시와 수원시로 더 넓다. 두 도시의 인구 총합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감독할 근무자는 고작 36명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측은 "정기조사와 기간제다수고용사업장,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조사는 어렵고, 각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위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기대하기에는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한계가 있는 셈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구제도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최후의 선택은 '노무사'를 고용하는 일인데 조정 과정이 길어지면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이 곧 '노무사 선임비'가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일 수는 없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힘든 하루를 이어나가고 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이 노동 속에서, 사장님은 오늘도 그들의 '조기출근'을 희망한다.

아르바이트
'리걸클리닉'으로
도움받자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지난 22일과 23일 청운관 1층 로비에서 생활법률상담센터가 각각 오후 2시부터 6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생활법률상담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자취, 하숙, 아르바이트, 과외 등의 문제와 관련된 우리학교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해줬다.

리걸클리닉은 생활 속에서 법을 잘 몰라 해결하기 어려웠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해온 무료법률상담센터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생활법률상담도 진행 중이며, 구제가 필요한 양을 한 사건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기관이다.

법률상담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리걸클리닉 홈페이지 (<http://khlc.khu.ac.kr>)를 방문해, 본인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의뢰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담의뢰서를 작성하면 된다. 법률상담은 최소 1주일에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2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담내용은 1대1 면담을 통해 설명해준다. 리걸클리닉은 우리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 가능하다.



지난 22일, 23일 리걸클리닉과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생활법률 상담센터

2014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요강(일반전형)

1. 모집학과(야간)			
구 분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신입생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일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조세법전공	00명
편입생	전체학과		약간명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구 분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연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일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00명
특별과정	한·영 법률 통번역과정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구 분	자 격	전형방법	
석사과정	신입생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위·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생 •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면 접	
연구과정	석사과정 신입생 자격과 동일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5. 21(수) ~ 6. 13(금) 17:00	우편·방문·E-mail접수	
전형일	2014. 6. 14(토) 14:00	13:30까지 복합관 수험생대기실 입실완료	
합격자 발표	2014. 6. 20(금) 16:00	interlaw.knu.ac.kr	
등록비자금 납부기간	2014. 6. 23(월) ~ 6. 25(수)	예치금 : 300,000원	
※ E-mail접수 : hksb2670@knu.ac.kr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 (http://interlaw.knu.ac.kr)에서 다운로드	입학원서 (본 대학원 홈페이지) 최종학교 출입(예정)증명서학위번호 기재 최종학교 출입증명서서면서명문서 검증 기재 주민등록증본인 재직 또는 복학수료증명서(국민은 복무확인인서) 1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국민은 복무확인인서) 2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국민은 복무확인인서) 2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국민은 복무확인인서) 2부		
나. 대학교(학부) 출입증명서 1부			
다. 전적 대학원(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일학 저학년에 한함)			
라. 학업계획서 1부			

5. 법무대학원 특징
가.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수료자의 경우,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마련을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을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수료자의 경우,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기 취득학점(8학점) 인정 가능
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과 LL.M.과정과의 복수수학제도(주진 중)
• 복수수학 취득 시 미국 변호사협회(LL.M.회원) 규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워싱턴 D.C. 등)
라. 중국법학과의 경우 중국인민대학원 및 경법대학원의 학점교류추진 중

법무대학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안내

1. 학과소개

글로벌경영학과
•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대처하는 실무 중심의 국제화 교육
• 학제적·권위 있는 비独自 경영 학제적 전문성을 초빙한 교수진 구성

스포츠경영학과
•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실무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스포츠경영

칼럼



정지호
사학 교수

이 현재는 동아시아(한중일)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탈민족주의화가 가속화돼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동아시아와 내셔널리즘 ②

연재순서

- 1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일본의 경우
- 2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중국의 경우
- 3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한국의 경우
- 4회 : 미래지향적 역사 논의를 위해

“

량치차오가 구상한 ‘대민족주의’는 혈통이나 언어, 풍속을 초월해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자각하는 ‘민족의식’의 발현에 의해 구현된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민족관념이다

”

교양 리포트 ⑨ – 서양고대철학 : 제논의 역설에서 카오스 이론까지

‘변증법’은 무엇인가



박종화
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

강의의 목적은 결국 교양인으로서 대화의 여러 다른 전형들을 미리 고찰하는데에 있다. 교양인의 대화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또 교양인의 대화에는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발견하기 바라는 것들은 바로 이것이다.

‘만들어진 전통’ 중국의 민족주의

오늘날 중국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은 본원적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된 역사적 산물이다. 즉 실제로서가 아니라 관념의 세계인 ‘중국’이 19세기 말 열강의 침략 속에서 자신을 중국이라는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국가의식을 고양하고 영토적 공간으로서도, 인간집단으로서도 중국사상 전례가 없는 명확한 윤곽을 창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천하에서 일국으로

전근대 중국의 세계관은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중국(華)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아직 문명이 미치지 않은 오랑캐(夷)가 존재한다고 하는 일원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이관에 입각한 중국의 지배질서는 서구 근대에 성립한 ‘국민국가’와 같이 명확한 국경을 가지며 그 내부를 규칙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덕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구조 외에 표면상으로는 전 세계에 미쳐있었다. 이른바 ‘천하일통(天下一統)’의 관념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화이관에 근거한 중화세계 질서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한다. 중국이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 편입됨에 따라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많은 나라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세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각국이 경합하는 다원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의 패배이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청불전쟁에서 패배한 이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서양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됐지만, 여전히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을 본으로 하고 서양을 말로 한다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관념은 동방의 작은 오랑캐라고 치부하던 일

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천하의 중심에서 세계 속의 일국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부각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심의 의미로 사용되던 ‘중국’이라는 말의 의미도 새롭게 부여됐다. 정말의 개혁사상가 량치차오(梁啟超)는 종래 국명으로 부르는 한, 당, 송 등은 모두 일개 왕조의 명칭에 불과하며 각 왕조의 교체를 뛰어넘는 국명이 없다는 사실을 개탄하면서 전체 역사를 포괄할 수 있는 국명으로서 ‘중국’을 사용할 것을 제창한다. 왕조를 초월해서 중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중국’은 국명으로 제창했다는 점에서 근대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전통적 화이질서의 세계관과 단절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승하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전통의 발명이다.

개별적 왕조를 뛰어넘어 전체 역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 ‘중국’은 관념의 세계에서 탈피해 실체적인 개념으로 자리한다. 량치차오는 그에 대한 근거로써 중국지역을 크게 행정구역상 18개 성으로 구성된 중심부와 만주, 몽골, 티베트, 신장(新疆) 등의 주변부로 구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청조 강희에서 건륭시기에 걸쳐 지속적인 외정의 결과 확장된 영역으로 근대국가의 영토와 같이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분된 영역은 아니었다. 또한 각 지역에 대한 통치도 근대국가와 같이 규칙적으로 미쳤던 것이 아니다. 량치차오는 이들 지역을 ‘중국’이라고 하는 일체성을 띤 국토 관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전통적 판도(版圖)를 근대적 ‘영토(領土)’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중화민족’의 발명

‘중국’과 ‘타국’의 경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부각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동포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였다. 그것은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신분적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과거제를 통해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신분적 차별은 매우 엄격한 사회였다. 량치차오는 ‘중국’이 허약해진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즉 중국은 과거제를 통해 누구에게나 신분 출세의 길이 열려있었지만, 이 때문에 서구 열강과 같이 자유 평등을 제도적으로



화이사상에 근거한 중화세계 질서는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한다

로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에 급급했다. 나라가 망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없다면 수수방관하는 현실이 곧 중국을 망국적 위기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차별의식이 없고, 서로가 동등하게 독립·자주적인 ‘국민’으로 거듭날 것을 호소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국민’을 어느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인가이다. 당시 량치차오 등 입헌파와 대립각을 세우던 혁명파는 배만혁명(排滿革命)의 기치 하에 ‘중국’을 한족의 ‘중국’으로 동격화시켜 만주족의 청조를 전복시키는데 주력했다. 량치차오는 이러한 혁명파의 민족주의를 편협한 ‘소민족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당면한 구망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족을 비롯한 제 종족을 통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형성해야하는데, 이를 ‘대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구상하는 ‘대민족주의’는 혈통이나 언어, 풍속을 초월해서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자각하는 ‘민족의식’의 발현에 의해 구현된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민족관념이다. 량치차오는 이렇게 해서 구현된 대민족을 ‘중화민족’이라고 명명했다. 이 ‘중화민족’론은 이후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추앙받은 쑨원에 의해 중국의 제 민족을 통합하는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그 원류는 량치차오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정치, 경제질서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민의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 및 인민 간의 빈부격차, 민족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같은 끊임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중화민족’론을 이론적으로 재무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말 량치차오가 일생을 바쳐 추구했던 국민국가건설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중국의 국민국가건설은 여전히 역사적 의미를 함유한 현재진행형의 과제인 것이다.

는 형상적 자연으로써의 실체의 실존의 영역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변증법은 기지의 철학적 발견에 관한 겸토술적 측면을 지닌다. 변증론자는 어떤 문제를 질문하는 사람이다. 변증법적인 문제를 양자택 일적인 질문의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변증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의 목적은 여려 오류추리들을 파악하여 실생활에서의 혹은 학술적인 대화들에서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강의의 목적은 고대 철학자들의 변증법들을 해설함으로써 교양인으로서의 대화의 전형들을 미리 고찰하는 데에 있다. 교양인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끝나기를 그리고 내가 말할 차례가 되기를 그리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양인이라면 함께하는 대화가 논박이든 설득이든 추론이든 간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것이 공허하거나 허무한 대화가 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협력해야 한다. 공허하거나 허무한 대화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증법은 가정된 참된 원리를 합의해 대화에 의해서 논증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법이 이것에 속하며, 철학적 권유의 의미로써 산파술과 상기설이 이것에 속한다. 반어법은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 말한 것의 대립을 자신이 듣도록 하는 것이다. 산파술은 특히 청년들의 영혼의 암의 해산을 돋는 대화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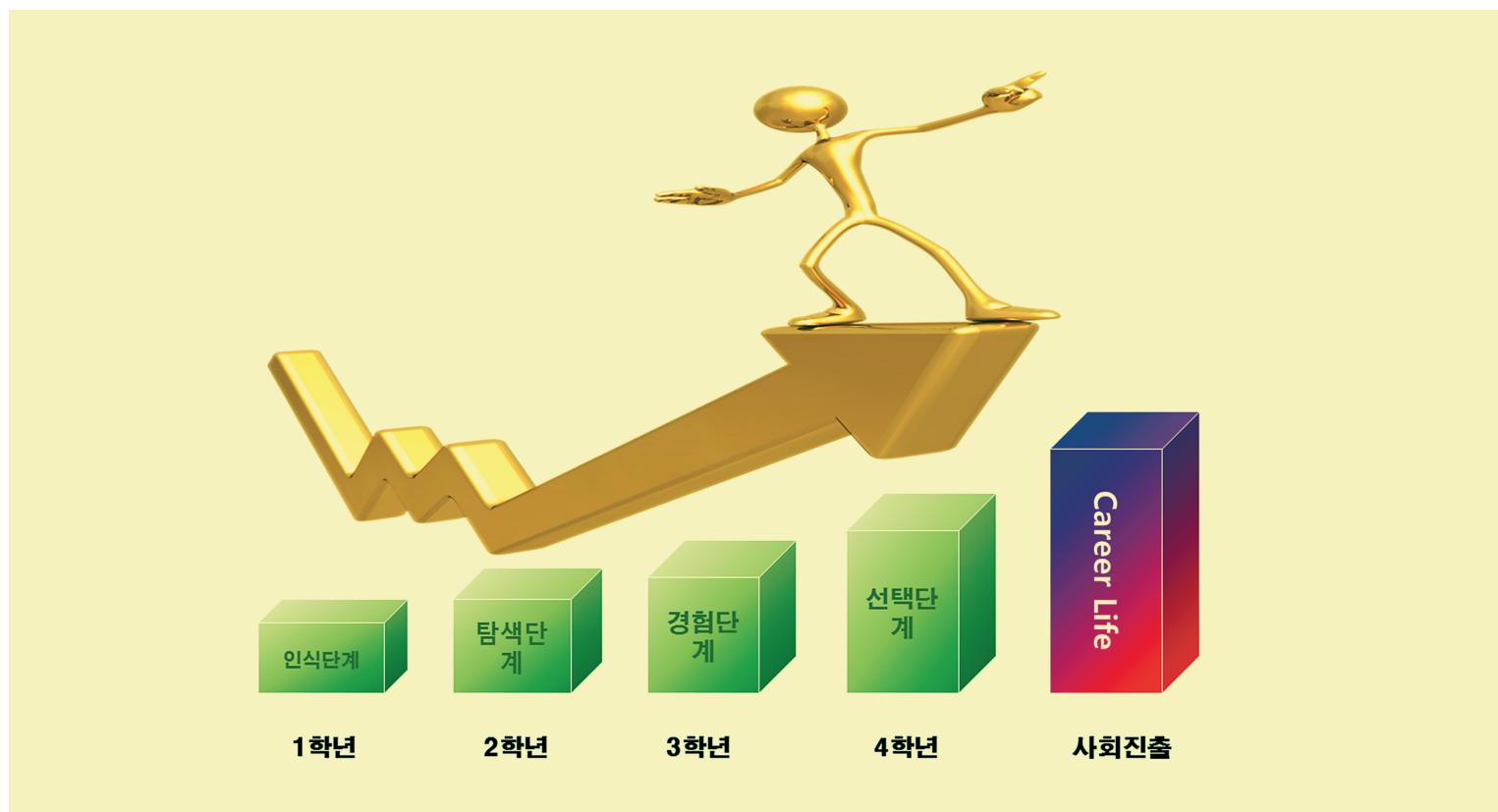
상기설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인식의 재

인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난 인식 추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주로 인간적인 것과 관련하여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대화의 상대자를 억견의 세계에서 암의 세계로 방향전환을 시키는 것이 그의 대화법의 목적이다.

플라톤의 변증법은 대화를 위한 공동숙

고의 과정이다. 변증법은 가정된 참된 원리를 합의해 대화에 의해서 논증으로 확인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의(definition)를 내리기를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명료화된 정의를 가지고서 내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하고 사유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직관의 대상들인 이데아들과 善(좋음)의 이데아에 관한 인식을 얻고자 한다. 이데아의 세계는 논리적으로만 요청되고 개념적으로만 파악되는 논리와 관념의 세계가 결코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여 감각적 사물과 분리되어 이것들에 앞서 있



졸업을 앞둔 6~7개월 만에 목표와 방향 설정에서부터 역량을 증명할 경험까지 쌓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꾸준히 쌓은 역량, 취업문 여는 열쇠

취업의 속살 ③ - 취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스펙' 이란 이름으로 학점, 영어성적, 인턴, 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대외활동, 자격증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만 가까스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재수생, 삼수생이 늘어나고 있고 스펙 확대와 관련한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장사 평균 취업경쟁률은 88:1이다. 그러나 신입사원의 79%가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신입사원의 직장 만족도는 31%라고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주요 대기업의 경우 약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해야 하는데 이들의 이직비율은 더 높다고 한다.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만두고 나오거나, 다니더러

도 만족하지 못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통계를 들여다 보면, 이제는 다른 눈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직업을 구하는 '취업'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특

정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 생활, 경

력을 의미하는 'Career 개발'을 준

비해야 하는 것이 학생들의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1학년 학생들이 취업진로 지원처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4학년이 돼서야 취업준비를 시작하던 몇 년 전에 비해 저학년 학생들의 취업,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건 분명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에 견주어 보면, 우리

의 현실은 아직은 부족하다. 학교 추천 채용은 지원자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학교의 취업률은 대학전체의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취업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학년 때부터 취업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가 관건이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고 난 후 기업·직무 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커리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실행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취업사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역량'이다. 면접장에 가면 인사 담당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가 '대학 시절 동안 어떤 역량을 길러오셨습니까?' 일정도 역량은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는 필수 요소가 됐다. 역량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증명돼야 한다.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은 커리어 방향에 따른 전략적인 경험 쌓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역량과 경험들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업 담당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당장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먼저, 요즘 대학생들은 30년 준비하고, 그 후 30년은 일을 하고, 나머지 40년은 삶을 꾸려나가야 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일하는 기간은 짧아지고, 그 후 남겨진 긴 시간을 살아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길어진 준비기간에 대한 고민과 일터에서 벗어나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커리어 준비와 함께 생각돼야 한다. 또한 사회는 능력 위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보상제 체제에서 기업의 핵심인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경력 관리를 잘해서 '나'를 브랜드로 내세울 수준이 돼야 한다. 단순한 취업이 아닌 커리어를 준비하라는 것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4학년 때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잡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진로를 고민하고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여러분의 4~5년 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은 매 순간 질문한다. 이것이 무엇일까? 저 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 질문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물건을 비교하고 유추한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려면, 현재 보고 있는 사물의 용도와 관련해 기준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미래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이다.

서양사상가들은 자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돼 있을까?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형상과 질료,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제기돼온 서양사상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방법'에 입각해 이를 해체하고자 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다

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해체란 존재론적 차이에 입각해 그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서양 근대문명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해체 작업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서양의 세계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졌다. 그의 새로운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게 묻고 다르게 생각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참여마당

김소언
컴퓨터공학 2014



세월호 참사 통해서 본 SNS의 역할

그간 세간을 달궜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사고 이후 자원봉사, 구호물품 기부와 더불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의미의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확산되고, 주모 집회도 열리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사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16일 9시경 침몰이 시작된 후, 12시쯤 전원 구출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오보였다. 또한 재난본부에서 투입한 인원이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실제 투입된 인원은 200명이 채 안됐고, 헬기 2대, 군함 2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가 전부였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속보경쟁에서 비롯된 정확하지 않은 보도에 실망하고 있을 때, SNS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 했다. 대표적으로 Facebook의 세월호 침몰 상황실에선 언론에서 보도되는 세월호 관련 뉴스를 요약해 알려주며 내용을 공유했고, SURVIVE페이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현 상황이나 필요한 물품 지원요청을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했다.

SNS는 실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다. 앞으로도 SNS가 많은 일에 사용돼 '참여'와 '공유'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듯 일방통행 식의 통보에 가까운 언론보도보다는 왜곡 없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생함을 더한 대화에 가까운 SNS의 힘이 돋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해 자원봉사 모집도 가능했고, 구호물품의 부족함을 널리 알려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 나중에는 쌓여만 가는 일반 구호물품보다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다이버를 위한 카라비너나 자일 같은 전문 물품이 더욱 필요 했는데, 이 문제 역시 역시 SNS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에서도 SNS의 힘에 주목해 Facebook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액을 기부받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먼저 충분한 조사를 했고, 진도 물품관리센터와도 연락해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요청을 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금액을 기부할 계획이었다. 모금액이나 구매 물품, 구입 과정, 영수증 또한 전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기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721,912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모금액은 전부 단원고등학교 총동문회로 보내 의미있게 쓰이도록 했다.

이처럼 SNS는 생각보다 실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다. SNS가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현장의 실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하나, 앞으로도 SNS가 많은 일에 사용돼 국민들이 '참여'와 '공유'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Medical Nutrition

여러분, 궁금하세요..?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는 여러분의 식습관과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캠퍼스를 누비는 강의스케줄...
활동장이 부쩍 많아졌지요, 그 덕에 체중이 줄고 있나요?
오늘은 오후 수업이 있는 날...
대학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늦잠, 아침은 잘 챙겨먹고 있나요?
알고보니 나의 술이 체질이야...?
학과와 동아리의 술모임 개근자가 되어 밥보다 많은 술을 먹고 있는지 않나요?
바쁘다 바빠, 오늘은 동아리 모임, 내일은 학과모임과 등기모임이 겹쳤네...
집밥 먹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여유로운 친구와의 수다시간...
하루에 먹는 카라멜마끼아또가 몇 차이지...?

새내기 여러분...
대학생활을 시작한지 어언 2달이 지나고 있군요. 나의 대학생활은 어떤가요?
선배라 불리는 재학생 여러분...
벌써 2학년, 3학년, 그리고 졸업반... 대학생활과 시작된 나의 생활습관의 변화, 내 몸은 어떻게 느낄까요?

학생 영양평가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식사와 체성분석을 통한 전문영양상담과 다양한 영양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 - 969 - 7715 홈페이지 www.rimn.khu.ac.kr 이메일 rimn@khu.ac.kr

건강한 습관, 여러분의 궁금증을 환영합니다.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218호 / 02-969-7715

스포츠 / 문화



21일 열린 성균관대와의 준결승전에서 활약한 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

색다른 경험 속
'생각의 차이'

국제학과 동아리 주최 말하기 대회

김창섭 객원기자 kcs0217@knu.ac.kr

【국제】 지난 20일 외국인 교류단체인 KHUddy(Kyung Hee University Buddy)가 주최한 말하기 대회 '생각의 차이'가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열렸다. KHUddy는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올해 출범했다. KHUddy 창단 후 첫 행사인 이번 대회에는 3명의 외국인과 4명의 한국인이 출전해 타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고, 아프리카 여행 경험을 소개한 강승한(국제학 2010) 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1부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했던 경험을, 2부에서는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콜롬비아에서 온 Maria Esther Castelli 씨는 콜롬비아의 음식과 한국의 음식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매운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상황을 재미 있게 표현했다. 프랑스 출신 Safaa Al Majthoub 씨는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 무표정한 얼굴에 대한 느낌을 전해 관객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기도 했다.

이어서 김영찬(국제학 2009) 군은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미국의 스킨십과 파티문화를 이야기해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날 대회의 우승자인 강 군은 아프리카 여행 중 만난 여러 외국인과의 대화 속에서 찾은 한국과 외국의 대화법과 이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Huang Minghao(국제학) 교수는 "참가자들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것 같아 의미 있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김창섭 객원기자

축구부 4강 진출, 야구부는 결승전 아쉽게 패해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김유림 객원기자 csyang1617@naver.com
공태인 객원기자 rhdxdols@naver.com
최지이 객원기자 jiyi66@naver.com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학부 선발전'에서 우리학교 축구부는 짜릿한 역전승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야구부는 결승전에서 역전패 당하며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다.

축구부는 지난 20일 수원월드컵보조경 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원대에 2-1로 승리를 거뒀다. 우리학교와 수원대 모두 지난 16일 리그 경기를 치루고 온 뒤로 선발 명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리학교는 팀의 주축인 김성훈, 엄진태(이상 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수원대는 엄광빈 선수가 각각 결장했다. 축구부는 엄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명의 미드필더(고승범, 안정훈 선수)를 포백 앞에 위치시켜 안정적인 4-2-3-1 포메이션을 구사했다.

우리학교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31분 역습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후 수비수 3명 사이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나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35분 상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이건철 선수가 즉면으로 내어준 볼을 황순신(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낚

고 빠른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수비수 몸에 막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축구부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전반 36분, 즉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수원대 서용균 선수가 노마크 상황에서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지승학(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막아냈고, 전반 42분 골키퍼와의 일대일 찬스에서 상대 선수가 밀어 넣은 공을 중앙 수비수 오준혁(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재빨리 걷어내며 실점을 막았다. 하지만 후반 10분, 우리학교가 수원대의 역습에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수원대의 페널티킥이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1-0이 됐다. 다행히 상대의 반칙으로 우리에게도 페널티킥 찬스가 곧바로 찾아왔다. 하지만 김정세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겼다. 득점에 실패한 우리학교는 후반 13분, 엄진태, 최동섭(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를 교체 투입했다.

축구부의 짜릿한 역전승
다음 상대는 강호 아주대

후반 35분 이민수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동점을 만들었다. 역전골도 곧바로 나왔다. 최동섭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골대 앞에 있던 이민수 선수가 헤딩으로 떨궜고, 그 공을 이건철 선수가 그대로 밀어 넣으며 2-1로 역전했다. 이후 우리학교는 더 이

상의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 학교는 수원대를 2-1로 꺾으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야구부는 지난 22일 성남 탄천 야구장에서 열린 '제6회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제95회 전국체전 일반부 선발전(전국체전 선발전)' 결승전에서 중앙대에 9-11로 아쉽게 패했다. 야구부는 5년만의 전국체전 출전을 노렸지만 출전권 획득을 눈앞에 두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야구부는 19일 세계사이버대와의 1차전에서 선발투수 김신우(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7-3 승리를 거뒀다. 우리학교는 3회초 안타 2개와 상대 실책을 틈타 3점을 앞서갔고 7회초 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2점 좌월홈런이 터지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김신우 선수는 이날 6이닝동안 69개의 공을 던지며 1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6회 1사까지는 노히트노런이었다. 6회말 1사 상황에서 아쉽게 안타를 허용하며 노히트 노런이 깨졌지만 후속타자들을 각각 범타로 처리하며 무실점 승리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김주현 선수가 2타수 1홈런 1득점 2타점 3사사구를 기록했고, 박기환과 이정호, 강동우(이상 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멀티안타를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21일 열린 성균관대와의 준결승전에서는 김주현 선수의 활약이 빛났다. 김주현

선수는 1회초와 3회초 연타석 흠련을 쏘아 올리며 4번 타자다운 활약을 펼쳤다. 선발투수 장다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도 8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만점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야구부는 김주현 선수의 홈런 2개와 상대 실책을 엮어 6-2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대학야구 하계리그전서
재도약 노리는 야구부

결승전 상대는 전날 디지털문화예술대를 상대로 11-5 대승을 거둔 중앙대였다. 우리학교는 2회초 중앙대 구본진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는 등 5실점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2회말 곧바로 안타 6개를 터뜨리며 8득점, 8-5로 역전했다. 2회 1사부터 마운드를 이어 받은 이호중(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5회와 6회 각각 1실점했지만 3회와 4회에는 2이닝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하는 등 무난한 피칭을 펼쳤다. 그러나 9-7로 앞선 9회초, 야구부는 중앙대에 4개의 안타를 허용하고 수비 실책이 겹치며 4실점, 재역전을 허용했고 최종스코어 9-11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한편 축구부는 3일 강호 아주대와 준결승전에서 전국체전 대표 선발을 위한 여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야구부는 9일부터 열리는 '2014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전'에서 다시 한 번 우승을 노린다.

5월 넷째 주(5.26~5.30)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PCA생명 SFP 채용면접	SFP	5.28(수) 11:00~17:00	청운관 상당실
LIG손해보험 인턴 채용면접	개인영업관리, 보험서비스, 법무영업, 경영지원부, 업무서비스, 지원운영, 상장개발/수리(일부 면접 가능)	5.29(목) 10:00~17:00	청운관 상당실
현대라이프 YGP 채용설명회	YGP	5.29(목) 14:0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현대라이프 YGP 채용면접	YGP	5.29(목) 15:00~17:00	청운관 상당실
KB생명 Dream프로그램 설명회	Dream 프로그램 1기 (수료시 KB금융그룹 서류전형 면제)	5.29(목) 17: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수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작시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키워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특강 관계 출석증조전 발급 : 특강 종료 후 현장 예산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행사 명	진행자	일 시	장 소
면접 대비 특강 (3회)	이화성 경영교수	5.26(월) 11:30~13:20	네오관 103호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수신신청 후 별도의 습인연락 없이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키워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특강 관계 출석증조전 발급 : 특강 종료 후 현장 예산에서 발급, 배부

3. 11 취업진로지도 및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방법, 면접질문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전략 등

* 상세 내용

상담부명	컨설턴트 명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월 ~ 금 오전 9:00~5:00 오후 17:00~19:00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집단상담	이동구 교수(취업 컨설팅)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온라인 온라인
On Line Off Line상담	한상백 팀장(취업지원팀)	상 시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입학준비도록 겸사하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식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n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08, job@kn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수시모집 안내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4. 6. 10(금) ~ 12(일) 17:00까지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리케이션) http://www.uwayapply.com/
교내서류 및 실무증 접수	2014. 6. 17(화) ~ 19(목) 09:00~17:00까지	현장접수 (의학관 224호)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7. 17(일) 16: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심사면제자 발표	2014. 9. 11(목) ~ 13(토)	http://khusm.knu.ac.kr/
심층면접고사, 예세이	2014. 9. 14(일) 09:00 예상면접	의학관
최종 합격자 발표	2014. 9. 25(목) 16: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http://khusm.knu.ac.kr/
합격통지서 및 등록 (예금 고지서 출력)	2014. 10. 6(월) ~ 10(금) 16: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출격 http://khusm.knu.ac.kr/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0. 6(월) ~ 10(금) 16:00까지	하나은행 전국지점
전액등록금 납부	2014. 12. 30(화) ~ 2015. 1. 2(금) 16:00까지	하나은행 전국지점</td